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진 성 오 소장의
신비한 심리사전

시간이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다양한 물리학자의 주장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사고과정은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는 일방향의 선형적 구조로 구성되는 것 같다. 또, 우리의 언어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순서를 가정하고 특히 우리 좌반구는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변화를 설명하는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과적 과정은 그냥 우리의 인식일 뿐이지, 실재로는 시간이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과학적 사실들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에서 나오고, 카를로 로베릴 같은 물리학자는 시간이란 우리의 인식 구조안에서만 존재하지, 물리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시간이 뭔지 오리 무중으로 빠지는데, 이러한 양자역학적 상상력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잘 표현한 일본 영화가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이다.

이 영화는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만나는 이야기를 다룬다. 사랑의 감정은 같은 순간에 존재하지만, 그 순간에 이르는 두 사람의 시간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영화에서는 5년마다 한 30일의 만남이 있다. 주인공 다카토시와 에미는 서로의 '지금'에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경험과 기억은 서로 다른 시간선 위에 존재한다. 에미는 5년 전 다카토시와의 만남을 기억해왔고, 다카토시는 이제 막 에미를 알게 된다. 이 비대칭적 기억은 뇌과학에서 말하는 '에피소드 기억'과 깊은 연관이 있고 에피소드 기억은 개인의 고유한 경험을 시간적·공간적 맥락 속에 저장하는 기억체계다.

에미는 다카토시와의 수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카토시는 아직 이 관계의 출발선에 있는 셈이다. 그래서 에미의 시작이 다카토시에게는 끝이고, 다카토시의 시작은 에미에게는 끝이된다.

하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지금 이 순간'은 양방향의 기억과 감정이 교차하며 둘의 만남이 시간을 넘어서는 어떤 연결로 남게 된다. 이는 물리적 현실과는 모순되지만, 인간의 주관적 시간 경험과는 유사하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지속의 감각'을 통해 인간은 현재를 연속적인 흐름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다카토시와 에미는 이 흐름 속에서 서로 다른 지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상대가 잃어버릴 감정을 경험한다. 기억은 시간이라는 축에서 반대되어 사라지지만 둘의 사랑은 단순한 시간의 선형적 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는 우리의 관계와 기억이라는 특성이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라져 가는 기억들을 접하는 삶의 경험은 우리에게 필연적이다. 그것이 같은 시간 축에 있으면서 공통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기억을 잃어가고 잊혀지고 누군가는 기억을 만들어간다.

주인공 에미의 시간 축에서 에미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미래가 곧 이별이라는 사실 때문에 현재를 더욱 절절하게 살아낸다. 다카토시는 과거를 알지 못하기에 순수한 감정으로 에미를 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별을 직감하게 된다.

영화는 진정한 사랑이란 결국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일순간의 지워질 기억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의 기쁨과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주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만이 영원히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해준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일본의 반도체 전략,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

기자 수첩
이 혜 민
〈산업부〉

일본이 반도체를 '산업의 쌀'로 재정의하며 국가 차원의 산업 재건에 한창이다.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이 시장 점유율 10% 미만으로 추락한 지 30여 년 만의 본격적인 반격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향후 5년간 반도체·AI 분야에 10조 엔(약 9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것만 봐도 각오가 남다르다. 이미 3조8000억 엔을 투입한 데 이어 거의 3배 규모의 추가 자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전략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다. 자국이 여전히 강점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기반으로 TSMC,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투 트랙 접근법이다.

특히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nm)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야심작이다. IBM, IMEC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히려는 전략이다.

더 주목할 점은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정부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FC-BGA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며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정책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단기적 세제 혜택을 넘어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페일세이프(Fail-Safe)' 전략이다. 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축적된 기술·인재·지식재산을 활용할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민첩한 대응 역량 구축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면 정부와의 공동 전략이 필수다.

셋째, 상호보완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국적과 규모에 구애받지 않는 실용적 지원과 기능 중심 생태계가 핵심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위기, 중국의 추격, 일본의 재건 의지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이 반도체 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반도체는 단순한 수출 효자 품목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일본이 30년 만에 깨달은 이 진실을 한국은 더 늦기 전에 받아들여야 한다. /hyem@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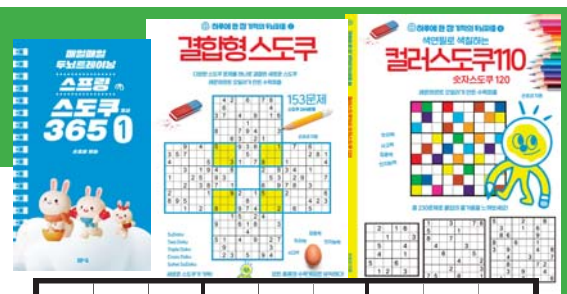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 한 번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4			1		8	3
	5			3				
			4			9	5	
2	4		6	1				
				2	7		1	6
	8	7			2			
				8			7	
4	3		5			8	9	

4					6	3	9	1
2				1				8
					9		4	
7						1		
		2	4		1	7		
		6						2
	7		1					
8				6				5
6	2	4	3					9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9	8	6	7	5	2	3	4
5	7	2	4	8	3	9	1	6
4	6	3	2	9	1	7	8	5
6	8	9	7	5	2	4	6	3
2	3	5	1	4	9	8	7	1
7	4	1	9	3	8	6	5	2
3	5	4	8	2	7	9	6	3
9	2	7	3	6	4	1	9	8
8	1	6	5	9	2	3	4	7

4	8	7	2	5	6	3	9	1
2	3	9	7	1	4	5	6	8
5	6	1	8	3	9	2	4	7
7	9	8	6	2	3	1	5	4
1	4	6	5	8	7	9	3	2
9	7	5	1	4	8	6	2	3
8	1	3	9	6	2	4	7	5
3	5	2	4	9	1	7	8	6
6	2	4	3	7	5	8	1	9

오늘의 운세

7월 15일 (음 6월 2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하루. **48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른다. **60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서 일을 추진. **72년생** 미끄럼에 주의해야 하니 오후 운전은 서행을. **84년생** 세상사에는 불가사의 한 일도 있게 마련.

37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이 들어오는 날. **49년생** 운동을 삼가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라. **61년생** 책 선물을 받고 기쁜 마음이다. **73년생** 사소하게 시작된 언쟁이 커진다. **85년생** 건강검진을 받고 별일이 없다는 진단을 받는다.

38년생 때가 왔으니 힘껏 정진하라. **50년생** 손톱 밑 작은 가시로 마음고생. **62년생** 직장에서 예의 바른 행동이 작은 허물을 덮어준다. **74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특히 가족과의 대화에 주의. **86년생** 외출을 자제하고 책상 정리를.

39년생 무리일지라도 시작한 일들은 끝을 봐야. **51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조심. **63년생**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니 현실을 파악하자. **75년생** 내 것이 작아 보여도 소중히. **87년생** 투자와 적선을 구분하고 행동.

40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52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위로. **64년생** 노력의 결과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음. **76년생** 가뭄이 해갈되듯 일이 잘 풀린다. **88년생** 네 탓 내 탓은 접어야 해결책이 보인다.

41년생 두 가지가 다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53년생**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넘친다. **65년생** 일이 어려우나 주변 도움으로 깔끔하게 해결. **77년생** 용띠와의 거래가 순탄치 않다. **89년생** 오늘 무엇을 할지 10분만 정리를 해보자.

42년생 매화가 피었다고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다. **54년생** 우물을 찾았으나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 **66년생** 말을 안 해도 가족은 서로 이해해 가는 것. **78년생** 믿음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온다. **90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43년생 믿어주는 사람이 많으니 행복. **55년생** 주저하지 말고 실행을. **67년생** 의견통일이 어려우니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행동. **79년생** 상대의 단점을 말하면 내게 다시 돌아오니 말조심해야할 것. **91년생** 부모님 방문으로 하루가 즐겁다.

44년생 이성의 유혹이 많은 날이니 자중자애하시길. **56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평소 내 탓이다. **68년생** 너무 방만하면 위험에 빠진다. **80년생** 지식이 풍부하도록 평소에 공부를. **92년생** 도전할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45년생 시련이 와도 희망과 용기를. **57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니 주의. **69년생** 욕심만 버리면 이득이 생긴다. **81년생** 양보의 미덕은 늘 인생에 보탬이 되는 게 세상사. **93년생** 표현 못 하는 것은 인정상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겠다.

46년생 효율적인 가계를 위해 저축을 계획. **58년생** 남동쪽으로 역마의 운이 있다. **70년생**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면 결국 작은 차이에서 비롯. **82년생** 평온을 찾으려면 자기 실력을 배양. **94년생** 새로운 희망을 위해 다시 노력.

47년생 사랑이 싹트고 운세가 풀리니 가족의 화목함이 오기시작. **59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해도 무리가 없다. **71년생** 지고도 이기는 법이 있다. **83년생** 경쟁하려다 조급함이 화를 부른다. **95년생** 지나친 선물은 뇌물이 되는 시대이니 잘해야.

김상회의 四季

생전 예수재의 공덕

천도재를 가볍게 여겨 칠 일마다 지내는 49재는 물론 초재나 막재도 지내지 않는 판국이다. 그러니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고 재산을 물려줘도 무시하고 넘어가니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윤달을 어찌 그냥 보낼 것인가? 생전 예수재에 관해 찬탄하는 글을 살펴보자. 봄에 뿌린 한 알의 씨앗은 가을에 가서 천만 개의 씨를 맺는다. 예수재를 지낸 공덕 또한 이와 같으니라. '라고 관정경(灌頂經)이라고도 불리는 불설관정수원왕생시방 정토경(佛說灌頂隨願往生十方淨土經)에서는 이처럼 생전예수재의 공덕을 치하하고 있다.

불보살님을 비롯해서 명부의 시왕 또는 그 권속을 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또 전생에서 진 빚을 갚아 그 공덕으로 내생에서의 복을 기원하는 예수재는 무량한 공덕이 따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승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해 심판을 받는데 이를 십대왕이 관장한다. 십대왕은 '시왕' 또는 '시왕님'이라고도 불린다. 십대왕은 그 명칭 그대로 10명의 신격으로, 각각 독자적인 이름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제1 진광대왕(秦廣大王), 제2 초강대왕(初江大王), 제3 송제대왕(宋帝大王), 제4 오관대왕(五官大王), 제5 염라대왕(閻羅大王), 제6 변성대왕(變成大王), 제7 태산대왕(泰山大王), 제8 평등대왕(平等大王), 제9 도시대왕(都市大王), 제10 전륜대왕(轉輪大王) 또는 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 등이 십대왕의 구체적인 이름들이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분이 바로 염라대왕인데, 그분은 특히나 시왕 중에서도 재판장의 역할도 함께 하고 계시니 명을 마치고 온 자들을 다시 이승으로 보내는 판단을 하는 분으로도 알려져 있다. 생전예수재를 지내는 공덕은 다음날에 열가지 복으로 정리하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1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1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